

EBS 투데이 (2015.9.30)

010-9766-5262

(앞으로 자료 배부, 자료 안의 질문은
문자와 카톡으로 통일합니다.)

b1

(1)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房(방) 안에 켜 있는 燭(촉)불 누구와 離別(이별)하였
건대,

겉으로 눈물 지고 속타는 줄 모르시고,

우리도 저 燭(촉)불 같아서 속타는 줄 모르는도다

1. '촛불'은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o,x)
2. 화자의 대상의 동일시를 통해 특정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o,x)
3.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o,x)
4.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o,x)

(2) 바람 서리 섞어친 날에

風霜(풍상)이 섞어친 날의 갓 피은 黃菊花(황국화)를
金盆(금분)에 가득 담아 玉堂(옥당)의 보내오니
桃李(도리)야 꽃인 척 마라 님의 뜻을 알겠구나

1. '풍상'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는 시어이다.(o,x)
2. '황국화'는 쟁반에 담겨 작품 전체의 주제를 환기하는 중요한 사물로 드러나고 있다.(O,X)
3. '도리'와 '국화'의 유사성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O,X)
4. 화자가 보낸 황국화는 풍상을 이겨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O,X)

(3) 수양산 바라보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하느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회 낫드니

1. 이제와 자신을 견주어서 이제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o,x)
2.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ox)
3. 무상한 삶을 드러내면서, 변화하는 삶의 자세를 예찬하고 있다.(o,x)

(4) 주려 주그려 하고

주려 주그려 하고 수양산에 드렸거니

헌마 고사리 머그려 캐야시라

물성이 그분 줄 띄어 펴 보려고 캐미라

1.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사리를 먹은 화자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o,x)
2. 대상의 속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o,x)
3. 주고 받는 인물 간 대화를 통해 흥취있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o,x)

(5) 안민가

군(君)은 아버지,

신(臣)은 득스살 어시여.

민(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민(民)이 득술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물생(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 짜홀 브리곡 어되 갈더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흐늘든

나라악 태평(太平)흐니있다.

1. 비유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O,X)
2. 첫 4구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뒤의 4구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정명적 도리를 말하고 있군.(보기형 문제)(O,X)
3.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을 가정하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O,X)
4. 나라가 태평할 수 있는 조건을 임금의 말을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O,X)

b2

(1) 고공가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는다 모
로는다. 비오는 날 일 업술지 솟뜨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아버이 사름
스리 흐려 흘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썬고 터
을 닷가 큰 집을 지어내고, 서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畚(전답)을 起耕(기
경)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7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움여리 사던 것술, 요스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
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짜그나 동웃시 쇼코 즘나, 무음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시오는 듯, 무슴 일 감드려 흘것할것 흐느는다. 너희니 일 아니
코 時節(시절) 좇츠 스오나와, 굿득의 니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논디, 옛
그지 火強盜(화강도)에 家產(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흐나 불타 붓고
먹을 씻시 전혀 업다. 크나큰 歲事(세사)을 엇지하여 니로려료. 金哥(김

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이 시무음 먹어슬라.

너희니 절머논다 험 혈나 아니순다. 혼 소타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라 혼 모흠 혼 뜻으로 녀름을 지어스라.

(중략)

너희니 드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그지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니 귀는 업서 저런줄 모르관디, 화살을 전혀 언고 옷밥만 닷토논다. 너희니 다리고 틱눈가 주리논가. 粥早飯(죽조반) 아춘 저녁 더하다 먹엇거든, 은혜란 심각 아녀 제 일만 하려하니, 험 험 새 들이리 어니제 어더이셔,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이드라하며 셔 샷 혼 소리 다 소괘라.

1. 고공은 현재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서 이를 주인이 경계하고 있다.(o,x)
2. 현재 주인은 고공의 근검함을 매우 칭찬하고 있다.(o,x)
3. '요사이 고공'과 '이전의 고공'을 대비시켜 강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o,x)
4. 고공은 화강도를 비유한 표현으로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연민의 감정을 복잡적으로 지니고 있다.(o,x)
5.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o,x)

(2) 용부가

홍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 보소.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머니 고자질에 시누의와 엄숙하기 만동서여. 요악(妖惡)한 아우동서 여우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 노복(奴僕) 들며나며 흙구덕에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에라. 여기 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숫병을 기우리며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짚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 하여 볼까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라.

겉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탄 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警戒)하면 말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 받아 맞닥수요 들고 나니 초롱군에 팔자나 고쳐 볼까 양반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나 하여 볼까. 남문 밖 뺨덕어미 천생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 저기 무릎맞침 싸흠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며는 음식(飮食) 공론, 조상(祖上)은 부지(不知)하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할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衣服) 가지 다 내 주고 남편 모양 불작시면 삼살개 뒷다리요, 자식 거동 불작시면 털 벗은 솔개미라. 엇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집 저집 이간질과 음담패설(淫談悖說) 일삼는다. 모함(謀陷) 잡고 똥 먹이기 /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치마는 절러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1. 대상의 행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o,x)
2. 작가의 시누이, 만동서가 작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있음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o,x)
3. 시부모와 남편의 말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시적 화자는 비판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o,x)

4. 삼살개 뒷다리와 솔개미는 넉넉하고도 부유한 가정 환경을 보여주는 소재이다.(o,x)
5. 불공을 드리는 것에 대해 시적 화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6. 대상의 행동을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고 있다.<보기 제시형> (o,x)
7. 대상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권계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보기 제시형> (o,x)

b3

(1) 산촌에 눈이오니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문혔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게 벗인가 하노라

1. '시비를 열지 않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의 이미지를 환기한다.(o,X)
2. '일편 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어이다.(o,x)
3. '눈'은 화자로 하여금 속세에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도록 환기하는 시어이다.(o,x)
4. '산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장소로 현재 그곳에 가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o,x)

(2) 십년을 경영하여

추월산 가는 바람 금성산 넘어갈 제
 들 넘어 정자 위에 잠 못 이뤄 깨었으니
 일어나 앓아 맞은 기쁜 정이야 옛 임 본 듯하여라.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여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맞져 두고
 江山(강산)은 들일 뉘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1. 현재 세간의 물건을 들일 처지가 아니기에 비탄에 잠겨 있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O,X)
2. 화자는 물아일체를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o,x)
3. 초려삼간은 화자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다.(o,x)
4. 청풍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립하는 존재이다.(o,x)
5. 임을 맞이한 기쁨을 '바람'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O,X)
6. '바람'은 다음 수에 등장하는 청풍과 연계되어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O,x)

(3) 청산별곡, 어부단가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靑山(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흐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브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짐스대에 올라서 奚琴(희금)을 혀겨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 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호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나)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으리라. <제4수>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은 내적 부조화 상태에 있다.

② (가)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가),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 (가)는 (나)와 달리 서로 다른 지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2. (나)의 화자가 여행 중에 <보기>의 화자와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년넝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단 드러라 단 드러라

靑蓊笠은 써 잇노라 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흔 빅구논 내 좇논가 제 좇논가

水國의 ㄱ올히 드니 곡기마다 스져 일다

단 드러라 단 드러라

萬頃澄波의 슬꺨지 容與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① (나) : 나라가 어지러우니 자연에 와도 수도 쪽에 자꾸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② <보기> : 아직 미련이 남으셨군요. 저는 지금 자연과 하나가 되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③ (나) : 사랑하는 임금님이 잘 지내시는지 항상 생각이 나긴하지만 그래도 결국 전 자연을 선택했어요.

④ <보기> : 좀 더 살아가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어부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⑤ (나) : 맞아요. 하지만 세상이 지금 혼탁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는 하네요.

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의 2연의 '새'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소재야.

② (가)의 4연의 '밤'은 화자의 의욕을 드러내는 공간이겠군.

③ (나)의 '백구'는 '한운'과 유사한 대상으로서 화자는 입체적으로 공간미를 드러내고 있어.

④ (나)의 '백구'는 무심한 존재이기에 화자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군.

⑤ (나)의 '북궐'은 (가)의 3연의 '새'와는 달리 미련의 대상이겠군.

4. (나) 마지막 연과, <보기>를 연관시켜 해석하였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적합한 해석은 무엇인가?

<보기>

黃雀何方來去飛(황작하방래거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一年農事不曾知(일년농사부증지)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환옹독자경운료)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땀는데,

耗盡田中禾黍爲(모진전중화서위)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①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참새'와 같이 '늪은 홀아비'를 착취하는 대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군.
- ②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늪은 홀아비'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 ③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참새'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 ④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늪은 홀아비'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 ⑤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일년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늪은 홀아비' 때문이겠군.

5. (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서로 대화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願言*利門
 부모께 받은 몸 상하게 말라 不使損遺體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爭探珠者
 목숨 가며이 여겨 바다 밑에 드는가 輕生入海底
 몸이 영화로우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身榮塵易染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네 心垢非難洗
 담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리 澹泊與誰
 세상사람들단술을즐기거니 世嗜甘醴

- ① (나) : 당신 역시 세속에 대한 거리가 있군요. 세상은 붉은 먼지와도 같지요.
- ② <보기> : 맞습니다. 티끌과 때가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완벽하게 속세를 잊지 못하였군요.
- ③ (나) : 당신 말이 맞아요. 아직 임금님과 나라에 대한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 ④ <보기> : 당신이 아니더라도 담박한 맛을 아는 세상의 인재들은 많습니다.
- ⑤ (나) : 하긴 그래요. 설마 나라를 구할 현명한 인재가 없을까. 결국 전 결국 자연을 선택하겠지요.

(4) 집방석 내지 말아라

집방석 내지 마라 落葉(낙엽)엔들 못 안즈라
 솔밭 혀지 마라 어제 진 들 도다온다
 아히야 濁酒山菜(탁주산채)일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 1. 낙엽과 달은 화자의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들이다.(o,x)
- 2. 낙엽은 화자에게 무상감을 부여하는 대상이다.(o,x)
- 3. 자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o,x)
- 4.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o,x)

(5) (전원)에 나쁜 흥(흥)을

田園(전원)에 나쁜 흥(흥)을 전나귀에 모도 짓고
 溪山(계산)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琴書(금서)를 다스려라 나쁜 희를 보내리라.

- 1. 밭을 저는 나귀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o,x)
- 2.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o,x)
- 3. 거문고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이다.(o,x)
- 4.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o,x)

b1

- (1) X, O, O, X
- (2) X, O, X, X
- (3) x, o, x
- (4) x, o, x
- (5) O, X, O, X

b2

- (1) x, x, o, x, o
- (2) x, x, o, x, x
- o, o

b3

- (1) O, O, X, X
- (2) X, o, x, x, X
- ___ X
- (3) 5, 4, 3, 1, 4
- (4) o, x, o, x
- (5) x, o, x, x